

■ 2026 새해설계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

“지역 벤처, 지원의 대상 넘어 성장 주체로”



행정·산업 재편 속 기회 포착... 생태계 전환 신호탄 정책 연계 강화·협업 확장·세계 시장 지향 전략 제시

“광주·전남은 더 이상 균형발전의 수혜자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설계하고 성장을 이끄는 주역으로 나서야 합니다.”

김현수 광주전남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광주·전남 벤처 생태계가 ‘지원의 대상’에서 ‘성장의 주체’로 전환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시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통합 행정수도 논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국가 대형 연구시설 확충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김현수 회장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변화는 단순한 행정구역 재편이 아니라 산업과 인구, 자본과 기술이 동시에 이동하는 국가적 구조 전환의 시작”이라며 “이 흐름은 광주·전남 산업 생태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공 기능 분산과 연구기관 유입이 기업 이전과 기술 혁신으로 이어지고, 전문

인력과 청년층 유입이 지역 사회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를 광주·전남이 완전히 체질을 바꿔야 할 ‘결정적 분기점’으로 짚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책과 행정을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기획 역량, 수도권과 지역을 잇는 개방형 협업, 그리고 AI·에너지·콘텐츠 등 지역 강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지향 전략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벤처는 변화 자체를 기회로 바꾸는 DNA를 가진 존재”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벤처 생태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도권 중심의 자본·정보 편중 속에서 지역 벤처가 겪어온 성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 정책·산업·금융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공공 R&D와 지역 벤처의 연결 고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과 공공 과제가 지역에 머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의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획 단계부터 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단순한 경쟁 구도가 아니라 전략적 협업을 통해 기술과 자본, 인재가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광주·전

남이 독자적인 산업 정체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시장을 향한 시야 확대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제 지역 벤처도 처음부터 세계를 보고 기획해야 한다”며 “AI와 에너지, 콘텐츠 등 광주·전남이 강점을 가진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수 회장은 “협회는 올해를 기다리는 해가 아니라 준비한 만큼 앞서가는 해로 만들겠다”며 “정책 정보의 가장 빠른 전달자이자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로, 협업과 투자를 잇는 실질적인 성장 플랫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중대재해 사업장 안전 강화 광주노동청, 현장 합동점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초 불시점검을 이어가며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최근 전남 담양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담양군청,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연초 점검으로 중량물(철구조물) 취급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했다.

점검반은 사고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온 중량물 취급 공정을 직접 살피고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대 중대재해 유형과 12대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동절기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추락·끼임·부딪힘·가스폭발·질식으로 대표되는 재래형 사고 감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점검 결과 감전 방지를 위한 배전반 총전부 방호조치 및 접지 미실시, 중량물 취급용구에 대한 비파괴시험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졌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농가인구 사상 첫 200만명 붕괴...고령화 ‘심각’

15년만 100만명 이상 급감...올해 194만5000명 추정 10명 중 6명, 65세 이상...20~39세 청년농 인구도 뚝

국내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진행된 ‘농업전망 2026’ 행사에서 지난해 기준 농가 인구가 198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2만2000명(1.1%)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농가 인구는 2010년까지만 해도 300만 명대였지만, 15년만에 100만명 이상 급감했다. 올해는 194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호수는 지난해 97만호(추정치)에서 올해 96만3000호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된다. 농가 호수는 지난 2023년부터 100만호를 밑돌고 있다.

지난해 총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3.8%에 그쳤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지난해 139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명 감소했다.

이 중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은 지난해 56.0%로 전년대비 0.2% 높아진 가운데 올해는 해당 비율이 56.6%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읍면 단위 농촌 인구의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기준 29.7% 수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21.2%인 것을 고려하면 농가 인구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39세 청년농 인구는 2000년 76만9000명에서 2024년 13만6000명으로 급감하면서 인구 3000명 이하의 인구 과소화 읍·면 지역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때문에 농촌 지역의 노동력 부족과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류비·사료비 하락, 농자재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호당 농가소득은 1년 전보다 2.5% 증가한 5188만원, 쌀값 상승 속 호당 농업소득은 1017만원으로 6.2% 증가해 다시 1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2.8%(145만원) 증가한 5333만원으로 전망됐다.

유류비와 사료비 하락과 함께 농자재 지원 확대도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략작물작물 등 직불금 규모가 확대되며 농가소득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지난해 농업 총생산액을 3.2% 증가한 62조7389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생산액은 식량작물과 채소·과실 생산액 증가에 따라 1.0% 늘어난 63조375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재배업 생산액이 전년 대비 2.1% 증가한 38조231억원을 기록하며 특히 식량작물(1.5%)과 과실(2.3%) 부문의 생산액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축산업 생산액은 돼지와 가금류의 생산액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0.5% 줄어든 25조4485억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밖에도 올해 경지 면적은 지난해보다 0.1% 줄어든 149만7770ha로 전망됐다.

김용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장은 “지난 2016년 농촌 고령 인구 비율은 지난해 총인구 고령 비율(21.2%) 수준이었다”면서 “농촌 인구의 변화는 대한민국의 10년 후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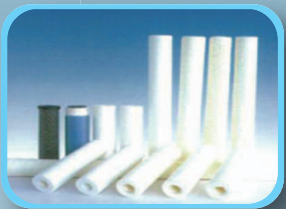
윤용석 기자 y01404@



롯데백화점 광주점, 두바이존득쿠기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보향떡집과 베이커리에서는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두바이존득쿠기’를 선보이고 있다. 두바이존득쿠기는 중동 디저트에서 영감을 받은 레시피에 고소하고 담백한 피스타치오스프레드와 존득하고 달콤한 초코마시멜로우의 조합으로 만들어져 그 독특한 풍미로 MZ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용수처리종합계통도 (Water Treatment Flow Chart)

- 정밀 여과장치 (Micro-Filter Housing)
- 백필터 시스템 (Bag-Filter System)
-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 R/O장치 (Reverse Osmosis System)
- 방청 방식 장치 (Dispenser)
- 급속 침전 장치 (Clarifier)
- 압력식 여과장치 (Pressure Filter)
- 중력식 여과장치 (Siphon Filter)
- 활성탄 여과장치 (Activated Carbon Filter)
- 경수 연화 장치 (Water Softener)
- 혼상식 순수 제조장치 (Mixed Bed Deionizer)
- 복상식 순수 제조장치 (Two Bed Deionizer)
- 수중의 불순물과 처리방법
- 이온 교환수지 (Ion Exchange Resin)
- 활성탄소 (Activated Carbon)
- 대기중 입자 크기별 FILTER 선정
- 임도비교표
- 마이크로 필터 (Micro Filter)
- Air Filter Media
- Air Filter
- Medium Filter
- Hepa Filter
- Filter Bag
- Pocket Bag Filter
- Air Filter의 시험방법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